

## 제23호 KT 영등포지점 홍풍석 안전관리자



### 일상 생활 안에서 안전 뿌리 내려야...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사무엘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번호에 만나본 KT 영등포지점 홍풍석 안전관리자는 이 ‘청춘’이라는 시를 대표하는 인물로, 「청춘이란 나이가 아닌 정신」이라는 사고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안전관리자이다.

#### ■ 안전 내사랑

78년 KT에 입사하여 통신인으로서 국가 통신사업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홍풍석 안전관리자는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안전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버리지 못해 산업안전기사 및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사증 등을 취득하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예방을 위해 몸을 던졌다.

#### ■ 기본과 함께 생활속에 안전이 뿌리내려야


덧셈, 뺄셈을 알아야 미적분을 할 수 있듯 안전의 기본을 강조하는 그는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현장에서의 안전 뿐 아니라 생활안전을 강조하여 근로자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는 등 모든 행복에 시작인 가정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또한, 평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들을 스크랩하여 관리하며, 회식자리에서도 ‘위하여’ 라는 구호 대신 우리내 무재해 구호인 ‘좋아! 좋아! 좋아!’를 외치는 ‘안전의 생활화’를 몸소 실천하는 안전인이다.

#### ■ 무궁무진한 안전활동

이러한 그의 안전마인드가 인정되어 작년 4월 무재해 2배수를 달성한 영등포지점은 KT내에서 수차례 안전우수지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그의 안전 전략을 배우러 타 지점에서 견학오거나, 초빙되어 강의를 나가기도 한다.

이외에도 사내 강사로서 안전관리실무 등의 책을 편찬하여 KT전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안전활동관련 사진을 게시판이나 회의실 등에 비치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는 등 그의 안전활동에는 끝이 없다.

새로운 생각, 변화를 시도하는 홍풍석 안전관리자의 마음에서 2004년 우리나라 안전에 새로운 역사가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성호연기자〉